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가정관리학 전공자의 역할 - 대안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의 가능성 모색 -

김 경 자(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 전공 부교수)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발제내용을 보면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물리적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여 이루어지거나 다양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통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이 두 방안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란 지역 내 주민들이 운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합니다. 자치센터는 기존의 동사무소 업무 중 건설, 환경, 청소, 세무 업무의 일부분을 구로 이관하고 지역 내 행정수요와 주민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고 99년 7월부터 278개 동에서 시범운영을 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도시지역의 전체 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내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상 지역사회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사회구성원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동사무소 건물의 개조를 통해 공동 활동을 위한 공간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동별로 경제수준과 주거유형, 환경상황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내 공동 관심사를 개발하고 해결하는 것이 용이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발제문에 나타난 난초골 공동체의 사례에서처럼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경제적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시범실시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

습니다. 첫째는 참여와 운영의 주체인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는 시행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했어도 있지만 주민의 요구를 잘 수렴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세부적인 사항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지역 내 자율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자치위원회가 행정체제 주변 인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기능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문화교실 일변도의 프로그램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외국어 강의나 컴퓨터 교육, 예체능 강습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는 주변의 사설학원들과 마찰을 빚을 우려도 있고 또 각 지역내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도록 하려는 원래의 취지에도 잘 맞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운영책임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적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 운영방식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복리는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순수한 자발적인 의미의 주민자치에 맡기다 보면 사업 진척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체의 운영주체가 되려면 행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계의 여러 측면, 즉 가족구조나 각계의 경제상황, 주거상황, 가계의 문제 및 요구 등에 대해서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잘 파악하고 하나의 목표로 결집시키고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조달과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이나 외부 시민단체 등은 이 운영주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께서 설명하신 사례들을 보면 행정이나 지역 외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한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활동이 실패한 경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학을 모태로 하는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은 가족, 경제, 주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가계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정복지사 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전공자들처럼 가계복지와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접근이 더 용이하리라 생각합

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 지역을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여하고 운영주체가 되려는 그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도는 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력 빈곤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단체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관리학 전공자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주체로서 참여할 때 아마도 가장 문제가 될 것이 비용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일부 부담시키거나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단체에서 보조받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